

햇차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곡우(穀雨)에 이  
웃과 차 한 잔 나눠 마시는 것은 어떨까? 옛  
선인전통차회는 올해부터 곡우인 4월 20  
일 자넷들과 차를 나누자는 '곡우데이' 행  
사를 펼칠 예정이다. 사진은 동아시아차문  
화연구소가 펼친 '한국 전통차 시연' 모습.



## “초콜릿·사탕 대신 우리 차 나눠요”

### 옛선인전통차회, 4월 20일을 '곡우(穀雨)데이' 로

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, 카카오데이, 삼  
겹살데이...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빼놓을  
수 없는 유행 아이템이 바로 갖가지 날들을  
기념하는 '○○데이(day)'들이다.

이러한 전통 기념일들은 가까운 사람들 간  
의 정을 확인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는  
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상상에 몰든 '마  
케팅용 기념일'이 되어 버렸다는 지적도 일  
고 있다.

그렇다면 차 수확을 시작하는 곡우를 기념  
하는 '곡우데이(穀雨 Day)'가 만들어진다면  
어떨까?

인터넷 차 동호회인 옛선인전통차회(회장  
강우석)는 올해부터 곡우인 4월 20일을 차인  
들 간에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'곡우데이'로  
정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.

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곡우는 보  
통 양력 4월 20일 경으로, 이날을 본격적인  
농사일이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.  
또한 곡우 때는 백곡(百穀)이 윤택해진다 하  
여 '곡우에 가물면 땅이 척차가 마른다'는  
속담이 있을 정도다.

특히 어린 차순을 따기 시작하는 곡우는  
차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다.  
옛선인전통차회 회원들은 4월 16~30일을  
'다우절(茶友節)'로, 곡우인 4월 20일을 '곡  
우데이'로 정하고, 차를 즐기는 사람들끼리  
차나 다도구 등의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

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.

강 회장은 "차 수확이 시작되는 곡우에 차  
의 미덕과 차 정신을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  
곡우데이를 지정, 관련 행사를 열기로 했다"  
고 의의를 밝혔다.

"그동안 '차의 날'인 5월 25일에 차 관련  
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펼  
쳐 왔지만, 일반인들이 각 행사에 참여하기  
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다우절과  
곡우데이는 꼭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

### 차순따기 시작하는 중요 시기

### 서울 대구서 길거리 행사 예정

### "쉽게 즐길 수 있다" 확산 기대

차와 관련한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차를  
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입  
니다."

각 차회들은 그동안 곡우를 맞아 '곡우다  
회' 같은 차 모임을 열어 오고 있었고, 차를  
매개로 한 기념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차인  
들이 많아 쉽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는  
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.

옛선인전통차회는 4월 24일 오후 2시부터  
서울 인사동과 대구 하동 지역 등에서 길거



곡우를 기점으로 차인들의 손길이 바빠진다. 순천 선암사 철전선원 뒤 야생차밭에서 차잎을 따는 손님들의 모습. 현대불교 자료사진

리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. 행인들을 대상으  
로 차 시음회를 열어 올해 수확한 첫 차를 맛  
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곡우의 의  
미와 차 생활의 도움말을 담은 팸플릿과 소  
량 포장한 차와 차 수저 등도 무료로 나눠줄  
계획이다. 회원들에 한해서는 선물용으로 쓸  
수 있는 10g씩 포장된 곡우차도 주문을 받아  
제공한다.

"다우절, 곡우데이 행사가 일반인들의 공  
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그

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"는 강 회  
장은 "차는 비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  
는 것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 
있는 문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  
었으면 좋겠다"는 바람을 밝혔다.

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는 '옛선인전통차  
회(cafe.daum.net/teakorea)'는 인터넷을 통해  
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곳으로, 현재  
3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.

여수령 기자 snopy@buddhapia.com

### 5월 5~8일 보성 다향제

### 마라톤, 차요리 대회 등 다채



지난해 열린 보성다향제.

올해로 31회를 맞는 전남 보성다향  
제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'신이 내린  
최고의 선물, 녹차'를 주제로 보성 제  
육공원과 녹차밭 일대에서 펼쳐진다.  
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 
'2005 보성녹차마라톤'이 개최돼 차  
인들뿐만 아니라 마라톤 애호가들의  
발길을 보성으로 이끌 예정이다.

축제는 4일 밤 전야제인 '다향의 밤'을 시작으로 다신제, 차잎 따기,  
전국 차요리 경연대회, 제12회 국제명차선정 한국출품작에선, 한중일  
차문화 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이뤄진다. 일립산 철쭉제, 대원사  
전통문화체험,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, 국궁대회, 게이트볼대회 등도  
함께 펼쳐질 예정이다.

보성군 관계자는 "보성다향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2005년도 유망축  
제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"며 "관  
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한 '참여형 웰빙 축제'로  
 거듭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보성군은 지난해 '제1회 대한민국 지역  
신박람회'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한 보성녹차의 지역적 신  
발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. (061)850-5223

한편 보성 녹차밭과 울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보성녹차마라톤  
은 5km, 10km, 하프코스, 풀코스로 나누어 진행되며 접수는 4월 16일  
까지 받는다. (02)548-565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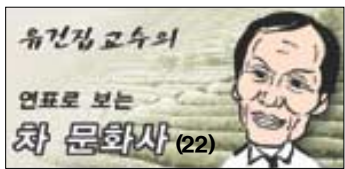
### "녹차, 하루 3잔 가장 몸에 좋아"

### 美 헬스데이뉴스, 연구결과 발표

"녹차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좋을까?"

처음 차를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법한 의문이다. 차가 몸  
에 좋다고 하는데, 도대체 어떻게, 얼마만큼 마셔야 하는지 잘 모르  
기 때문이다. 미국 의학뉴스 전문통신 헬스데이뉴스 인터넷판은 최근  
녹차를 효과적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3-5분 정도 우려낸 상태로 하루  
석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몸에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 또한  
녹차와 과일이나 채소로부터의 철분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, 레몬이  
나 우유를 첨가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.

헬스데이뉴스는 현재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 녹차를 마시면 피부암,  
유방암, 폐암, 결장암 등 각종 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 
녹차와 홍차, 우롱차에 포함된 산화방지제가 건강에 해로운 LDL 콜레  
스테롤을 줄이는 반면 건강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며 동  
맥의 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나왔다고 밝혔다.



### 고려시대

조정에 왕이 차를 삼음(常飲)하  
고 다방을 정비했다. 불가의 스님들  
이 대부분 차인으로 높은 수양과 참  
선을 차를 통해 이루어 했으니, 그들  
의 생활에서 차를 떼고 얘기하기 힘  
들다. 유학자들은 중국에 다녀오는  
이가 많아 자연스럽게 그곳의 다학  
(茶學)과 다법(茶法)을 익혀와 우리 차  
문화는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된다.  
이색 같은 이는 아버지들을 이어 차

### 유학자들 中 다학·다법 익혀 차 발전에 도움

를 즐기는 가풍을 일으켰으며, 사사  
(寺社)에게도 법계를 이어오면서 그  
들의 다풍을 전승했다. 중국도 원의  
조정에서 차에 관한 제도정비를 했으  
니, 국가재정에 도움을 얻으려는 것  
이었다. 다유국(茶由局)의 설치나 다  
세 징수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차의  
생산증대를 위해 노력했다. 일본도  
정치하는 무인들이 불교와 깊은 관계  
를 맺고 있었기에 사찰을 중심으로  
그들의 차생활이 이루어졌다.

① 원천석: 고려시대 치악산에 은  
거한 은사(隱士)로 이의차 사백(李宜  
差 師伯)에게 보낸 다시가 전한다.

② 태고보우(1301~1382): 원에 들  
어가 석충공에게 인가받고 임제종  
풍의 간화선을 전법했다.

③ 홍규: 충숙왕의 장인으로 원에  
다녀왔으며 다시가 전한다.

④ 나옹화상(1320~?): 법명은 혜  
근. 차를 즐겨 '적다(摘茶)' '일원다  
(一椀茶)' 등의 다시를 남겼다.

⑤ 이색(1328~1396): 삼은(三隱)  
중 한 사람이다. 차를 즐겨 수습어 수  
의 다시를 지었다.

⑥ 예천(1301~1374): 시서화가로  
차를 아주 좋아했다. 고원경이 쓴 <운  
림유사>에는 그가 마셨다는 천백석차  
(泉白石茶)와 고야한 다풍에 대한 이

아가기 실려 있다.

⑦ 도안(1315~1371): 시인으로 차  
를 즐겨 '성중야직(省中夜直)' 같은  
다시를 남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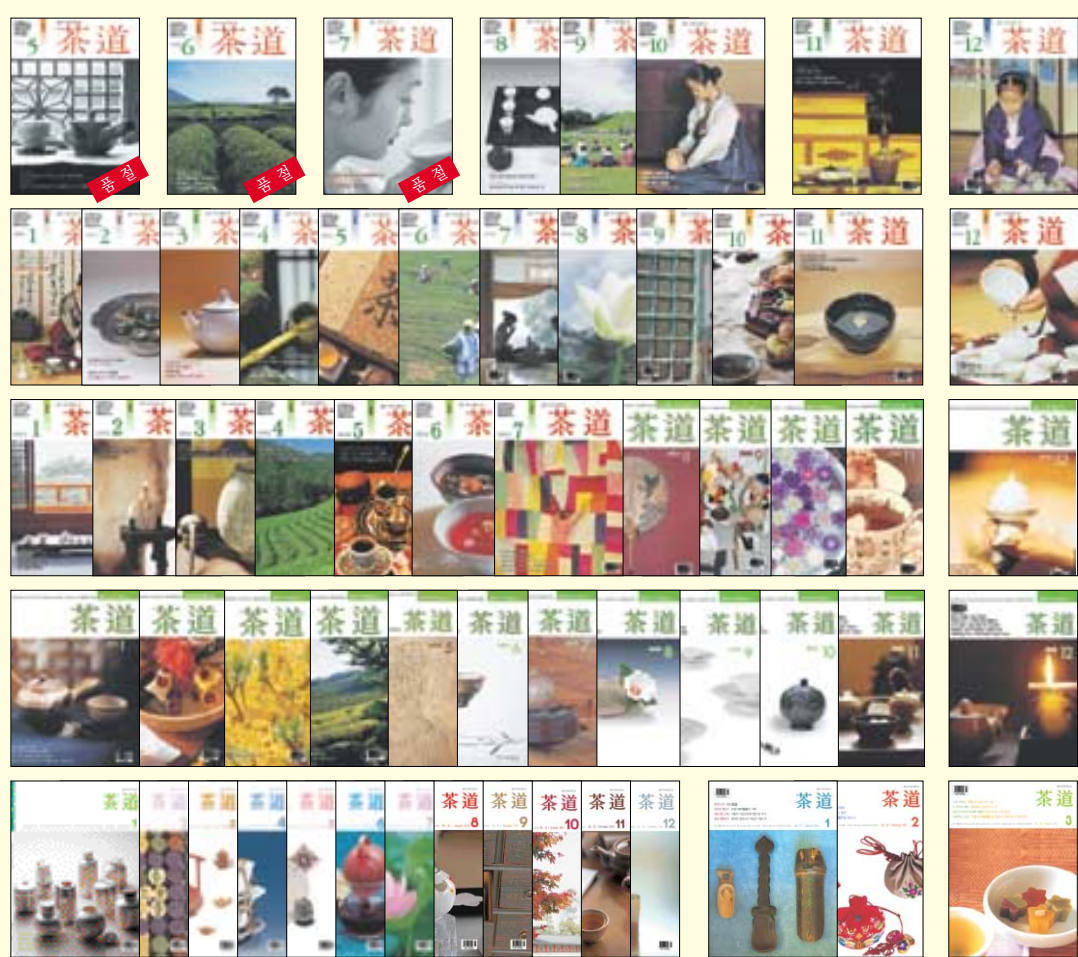
⑧ 마차원(1251~1321): 원대 희곡  
작가로 '한궁주' 속의 여러 곳에 차에  
관한 대사를 썼다.

⑨ 원각(1266~1327): 원대 문장가  
로 시에 능하고 차를 놓아해 '자다도  
(煮茶圖)'라는 작품을 남겼다.

⑩ <화원원진기(花園院震  
紀)>(1324)에 조선들이 차 모임을 가  
졌다고 적혀 있다.

⑪ <몽중문답(1325): 몽창국사가  
쓴 책으로 '중국인은 양생을 위해 차  
를 마시고 일본인은 참선을 위해 차를  
마신다'고 했다. ■성균관대 예절다학

시대별 연표	시대별 연표		시대별 연표	
	한국	중국	일본	일본
고려시대	1300 원천석의 출생 ①, 이승휴의 죽음 1301 태고보우 ② 1306 안향의 죽음 1308 근시, 대방의 정맥 조정 왕이 신묘사에서 차를 마심	1301 예천 ⑥		
	1312 근시 다방 회복 1314 서적 5800여 권을 들여옴 1316 홍규의 죽음 ③ 1318 정사도의 다시(茶詩) 1320 나옹화상의 출생 ④	1313 각다비해소, 다유국(茶由局) 설치 1315 도안 ⑦ ⑧ <운선잡기(雲仙雜記)> 1318 강남의 다세(茶稅)를 늘림 1321 마차원의 죽음 ⑧	가마쿠라 1313 투다가성행 1316 북조지조 집권	
	1324 안축, 원의 과거에 등과 1328 이색의 출생 ⑤	1327 원각의 죽음 ⑨		1324 을다회를 가짐 < 회원원진기> ⑩ 1325 <몽중문답(夢中問 答)> ⑪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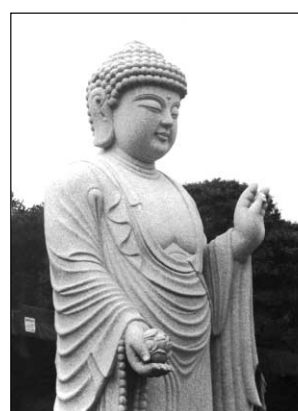
좋은 책, 향기로운 삶

월간 다도 과월호를 판매합니다

과월호의 권당 가격은 5,000원

문의전화 | 02)722-777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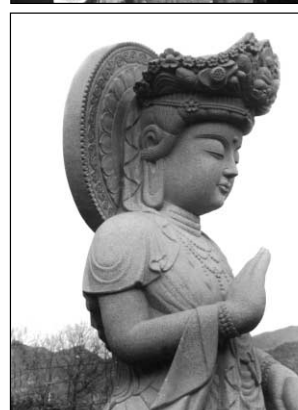
## “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”



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. 아직도 이 땅  
곳곳에 우리 기슭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 
수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 
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.

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 
다합니다.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.

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



석재조각의 대가



동국석재조각예술원

전화: 031) 531-5349 / 휴대폰: 010-7474-5349